



정의의 종

Vol. 22 2012. 1.

발행인: 정중섭 | 편집인: 한기정
151-743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산 56-1
Tel : 02-880-6866 | Fax : 02-889-7196
http://law.snu.ac.kr



2010학년도 후기 법과대학 학위수여식



2010학년도 후기 법과대학 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 29일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정중섭 학장, 김영한 법대 동창회장, 재학생과 교수, 학부모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박사 9명, 석사 17명, 학사 63명 등 총 89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 2 page

법학연구동 · 법학도서관 리모델링



법학연구동 3~6층과 법학도서관 1층 라운지를 개·보수하는 리모델링 공사가 지난 8월에 완료되었다. 법학연구동 3~6층의 복도와 로비 및 세미나실 공사로 수업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법학도서관 1층 라운지를 새로 리모델링하여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마련하였다.

인사이드

6월 13일자로 노혁준 교수가 학생부학장 겸 학생부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9월 1일자로 Hans-Peter Folz 교수가 신규 임용되었다.



노혁준 교수



Hans-Peter Folz 교수

Contents

- 2-4 법대 · 법학대학원 소식
- 5-6 법대 초청강연
- 7-9 교수동정
- 9-11 신간소개
- 12 발전기금

2010학년도 후기 법과대학 학위수여식

2010학년도 후기 법과대학 학위수여식

일시 : 2011년 8월 29일(월) 15:00 장소 :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



2010학년도 후기 법과대학 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 29일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개최되었다.

정중섭 학장은 “서울법대인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실현에 앞장섰다. 이것이 서울법대의 역사이다. 이 역사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로 이어지는 이야기이다. 그 길 위에 졸업생 여러분이 서있다. 여러분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주인공이다.”고 하며, “졸업생 여러분은 무엇이 진실이고 정의인지 밝혀야 한다.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에는 용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때로는 외롭고 험난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법대 교정에서 공부하던 청춘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 바란다.”며 졸업생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김경한 법대동창회장은 “여러분은 오늘 교문을 나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것이다. 대학바깥의 사회는 엄혹하다. 나는 여러분의 꿈과 이상을 믿는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라’는 서울법대 정신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계속 사회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졸업생들에게 “위기와 고난에 과감히 도전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여라. 마지막으로 따뜻한 가슴을 지닌 법학도가 되어라.”는 조언과 함께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였다.

대학원 졸업생 대표 김지평(박사 07) 학생은 “실무에 있으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쪽에서 얻은 의문을 다른 쪽에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의 공부는 즐겁고 행복했다. 혼자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준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며 졸업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학부 졸업생 대표 조재웅(학사 06) 학생은 “오늘 학사모를 벗으면 재학생에서 졸업생이 된다. 관악캠퍼스의 하루하루가 사진 속 풍경처럼 과거의 풍경이 되는 것이 아쉽다. 대학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토대로 사회로 발돋움을 옮길 것이다. 지금까지 제가 이루어온 모든 것은 동기, 선·후배, 그리고 교수님의 소중한 조언 덕분이었다. 이들과 가족 모두의 힘을 지렛대 삼아서 앞으로 한걸음 더 미래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주산홀을 가득 메운 졸업생 가족과 선·후배들의 축하 속에서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었고,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박사 9명, 석사 17명, 학사 63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제1, 2회 SNU Law 인재마당

법학전문대학원 1회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제1회 SNU Law 인재마당’이 지난 6월 29일 법학강의동과 법학연구동에서 진행되었다. ‘제1회 SNU Law 인재마당’은 오는 2월에 졸업하는 1회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중에서는 처음 열렸다. 대형 로펌과 대기업등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사전에 자신이 원하는 로펌이나 기업에 원서를 낸 뒤 서류 심사를 거쳐 심층 면접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지난 11월 19일에는 2회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제2회 SNU Law 인재마당’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지난 회와 마찬가지로 대형 로펌과 대기업등이 참여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높였다.

우리 대학은 인재마당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의 이행에 성공적인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홈커밍데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동문들이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에서 홈커밍데이 행사를 가졌다. 10월 15일에는 77학번(제35회) 동문들이 졸업 30주년을 맞이한 기념으로 한자리에 모였고, 10월 29일에는 87학번(제45회) 동문들이 졸업 20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 행사를 열었다. 오랜만에 모인 동문들은 서울법대에 들어온 것이 엇그제 같은데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동기들과 추억을 되새겼다.

이번 홈커밍데이에 참여한 동문들은 후배들의 학업 증진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애정과 후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SNU-LMU 공동학술 심포지엄



지난 9월 21일과 22일 양일 간 법학연구동 서삼홀에서 “Current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라는 주제로 우리대학과 독일 뮌헨대 법대의 합동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에는 발표를 준비한 양교 6명의 학생 외에 뮌헨대 전 학장과 현직 독일 판사 및 변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우리학교에서도 관련 분야의 교수들이 자리를 빛내었다.

심포지엄의 Opening Ceremony에서 정종섭 학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 로스쿨과 뮌헨대 간의 관련 프로그램이 더욱 발전하며 양교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후 “동시에 이러한 노력이 나아가 한국과 독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심포지엄이 가지는 의미에 무게를 두는 동시에 추후에 이어질 양교간의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마지막 발표 이후 양교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발표를 정리하는 자리에서는 학생들의 훌륭한 발표에 대한 칭찬과 아울러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양교의 우애를 돈독히 할 것을 약속하였다.

‘아시아의 공동변영과 법의 지배’ 학술대회



서울법대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아시아의 공동변영과 법의 지배”라는 주제로 지난 9월 23일과 24일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개회식에서 정종섭 학장은 “그동안 우리가 연구해온 것은 서구 중심의 법제 시스템이었다. 아시아의 특수성과 아시아 각 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이제는 우리의 문화에 맞는 시스템을 찾아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법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를 위한 공동의 장이 되고자 한다. 그 첫걸음이 이번 학술대회이며, 오늘 학술대회가 성과를 거두어서 앞으로 아시아의 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하며 개최를 축하하였다.

기조연설에서 권오승 환태평양법 연구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아시아법연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법학자와 법률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은 뜻 깊은 일이다. 법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아시아법이 앞으로 나아가갈 방향을 전망해볼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시아 각국의 법이나 다수의 광역법을 연구하여 이를 조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를 초월하는 아시아공동체법의 기

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법의 주제적 입장에서 아시아 각국의 법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해야 하며, 또한 아시아 광역법의 내용이나 특성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광역법을 초월하는 아시아법의 정체성을 밝혀내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아시아법 연구가 가지는 독자적인 의의와 가치가 있다.”고 하며 연설을 마무리 했다.

학술대회 첫 날인 23일 세션 1에서는 신희택 교수의 사회로 ‘아시아 각국에 있어서 아시아법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Masanori Aikyo 교수 (Graduate School of Law, Nagoya Univ. of Japan), Dayuan Han 교수(Law school, Renmin Univ. of China), Yao Jian Zong 교수(Law School, Jilin Univ. of China), Helu Jin 교수(Law School, Jilin Province Yanbin Univ), Phat Nhu Nguyen & Khank Ngyuen Bui(Institute of State and Law of Vietnam), Igor Tsay 교수(Univ. of World Economy and Diplomacy of Uzbekistan)가 각각 발표하였다. 세션 2에서는 이근관 교수의 사회로 ‘한국에 있어서 법적 교류와 협력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익현 국장(법제처 경제법제국), 박준희 연구관(헌법재판소), 조병구 판사(사법연수원), 류국량 검사(법무연수원), 이준서 팀장(한국법제연구원 법제교류지원팀), 김범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발표했다. 둘째 날인 24일에는 윤호일 대표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의 사회로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의 지배’라는 주제로 윤세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Xiaoye WANG 교수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Toshiaki TAKIGAWA 교수(Kansai Univ. School of Law)가 발표하였다.

매 세션 후 종합 토론에서는 각국 참석자와 발표자 간에 열띤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 경력개발센터 강연회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력 개발과 취업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학기부터 경력개발센터 강연회가 열렸다.



우선 '법학전문대학원 시대, 바람직한 인재상을 말한다' 라는 주제로 4월 28일 오양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5월 12일 김용담 변호사(전 대법관, 법무법인 세종), 5월 19일 정상명 전 검찰총장, 6월 2일 우창록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참여하여 법학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할 이상적인 인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Skill Building 및 Professionalism 강연회' 라는 주제로 5월 18일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5월 25일 선용승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참여하였다. 이번 학기에는 11월 8일 천경훈 교수(서울법대)가 '로펌이 바라는 인재상' 으로 강연회를 열었다.

매 강연회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력개발센터는 앞으로도 미래 국가를 이끌어 갈 학생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더 많은 강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염인섭 초대전



지난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서암법학관 2층 라운지에서 염인섭 동문의 모교 초대전이 열렸다. 이번 초대전은 서울법대 동창들간의 보다 긴밀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교사랑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많은 동문들과 학생들이 관람하여 성황을 이뤘다.

염인섭 동문은 법대 21회 졸업생으로 개인전 4회(갤러리 라메르 외)와 단체전 및 국제교류전에 다수 참가하였으며, 현재는 한국미협, 송파미협, 상형전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2011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지난 10월 29일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에서 열린 '2011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에서 우리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어울림팀[최영식(법학대학원, 팀장), 정의석(법학전문대학원), 정지원(법학전문대학원)]이 영예의 1위- 법무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2011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한국인권재단이 공동주최하였으며 이번대회에서 1위를 수상한 어울림팀은 대회 부상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일정에 맞추어 제네바 해외 인권연수를 다녀올 예정이다.

미 특허정책, 전략현황 및 특허법 개혁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는 지난 9월 5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미국 특허법 개정 및 특허청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미 특허정책, 전략현황 및 특허법 개혁' 이라는 주제로 정상조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으며, Teresa Stanek Rea 부청장(미국 특허청)이 발표를 심영택 교수, 한상욱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안재현 국장(특허청 고객협력국)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백진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초청강연



지난 4월 26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백진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이 ‘글로벌 시대의 국제재판과 한국법률가’ 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였다.

백진현 원장은 지난 20년간 국제재판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이유와 그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어 “국제재판 활성화는 국제사회의 큰 이익이다. 국가는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고 국제재판을 통해서 국제법이 강화되며 국제사회 이상이 실현가능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이 현상은 세계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다. 앞으로 계속되고 가속화할 현상이다.”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재판에 소극적인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아

진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분쟁을 재판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재판만능주의가 아니라 재판이라는 옵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이 분쟁해결을 위한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재판을 준비하는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국제 재판이나 국제법 등 국제사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여 졸업 후에도 국제 분야 쪽에 커리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이 너무 제한되어 있으나, 법조계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 평화와 국제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공적인 국제법 분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곽노현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초청강연



지난 5월 3일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학교행정과 교육행정, 그리고 민주주의’ 라는 주제로 곽노현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의 강연이 있었다.

곽 교육감은 먼저 서열주의와 지역주의 등 각종 전근대적인 왜곡이 병존하는 현실을 거론하며,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학교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 반민주적 방식에 의한 민주주의의 옹호를 받아들일 수 없듯 반인권적·반교육적 방식에 의한 교육도 옹호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지금의 교육이 아닌 민주시민의 덕성을 기르는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며, 이를 위해 “문예체 교육, 진로적성 교육, 민주시민교육을 전면화하는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러한 혁신학교의 공교육을 통해 가정교육의 문화격차를 극복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함과 동시에 민주주의에 필요한 ‘기회의 균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교육행정 관점에서의 과제로 “행정권력을 민주주의의 아래에 두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 방법으로 “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에 대해 헌법적 통제원리를 도입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며, 이를 통해 관료주의와 엘리트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교육행정에서 실현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민주주의적 관점과 실천이 한국교육을 고쳐나가는 중요한 동인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한국 교육이 보다 심화된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게 하겠다”는 자신의 교육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15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학생들에게 “공교육이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행정뿐 아니라 시민의 참여도 필요하다. 자신의 시간과 경험, 지식을 공교육과 공유해 줄 것을 부탁한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 초청강연



김준규 전 검찰총장의 서울법대 초청강연이 지난 5월 24일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열렸다.

‘Global standard와 형사사법제도’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전 세계를 누비며 선진형사사법제도를 몸소 체득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형사사법제도의 Global Standard와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형사사법제도 및 절차”가 바로 현재 형사사법제도의 Global standard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법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와 법조 Network의 국제화”가 요구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이어진 ‘Global standard와 검찰’ 이라는

소주제에서는 현재 Global standard에 맞게 변모 중인 검찰의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 소개하였으며 ‘Global standard와 범죄’ 라는 소주제를 통해서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으로써 요구되는 검찰상”과 보다 국제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초국가적인 범죄공조체계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열띤 강연과 이후 20여 분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마친 후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모교에서 후배들을 앞에 두고 강연을 할 수 있었던 이번 기회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항상 꿈을 가지고 정진할 것”을 당부하며 강연을 마무리 하였다.

정선태 법제처장 초청강연



정선태 법제처장의 서울법대 초청강연이 지난 10월 6일,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예비법조인의 꿈과 도전 - 대한민국의 발전과 법제도선진화’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연에서 정선태 법제처장은 모교에서 이러한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영광이라는 말로 운을 떼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이어 준비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에 있어서 법제처의 역할과 업무 내용 및 국제협력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이후 정선태 법제처장은 현재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이에 대비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설계의 중요성과 입법과 관련된 전문지식 습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조인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기존의 법학과목만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어렵다.’라는 말과 함께 블루오션으로써의 법제 영역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를 역설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이날 서울법대 초청강연에는 많은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강연을 경청하였으며, 강연이 끝난 뒤에도 활발한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이번 초청강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날 서울법대 초청강연에는 많은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강연을 경청하였으며, 강연이 끝난 뒤에도 활발한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이번 초청강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초청강연



지난 11월 1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정의(正義)와 선(善)’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권 위원장은 “우리는 ‘이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인가’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 재판에서는 정의가 나타나게 되어있다. 즉, 법률에 나와 있는 명백한 정의의 모습이다. 이처럼 법에 나타난 정의는 비교적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그 구체적 범위는 법원의 판사가 내용과 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는 정의가 무엇인지 명백히 표현되어 있지 않다. 정치 분야에서는 선거에서 누구를 뽑는 것이 정의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선거에서 누구를 뽑는가를 보면 결국 자신한테 이익 되는 쪽을 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익과 정의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정의를 문자 그대로 정치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정의로운 것만이 도덕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정의는 선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선은 무엇인가. 법 규정에 선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정의에 대한 규정은 있다. 선은 정의보다 포괄적이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선한 사람은 평온하다는 것이다. 그 행동거지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평온하다. 따라서 선한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방법의 하나는 그 사람의 행동이 평화로운가를 보는 것이다. 평화의 차원을 더 넓게 생각하면 사회 역시도 평온한 상태를 선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선을 정태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동태적으로 접근한다면 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곧 선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함을 의미한다. 선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그것을 지키고 확장하고, 즐기려는 노력이 도덕의 핵심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번영하고 있지만 정치는 아직 후진적이다. 이는 정치세계에 법치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치인, 공권력을 상대로 해서 헌법재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정치의 이상을 향해서 진화하고 있는 단계이다. 발전되는 현실 속에서 도덕을 함부로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아야 한다. 헌법재판이라는 이상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며 강연을 마무리 하였다.



최종고 교수

최종고 교수는 지난 2월 인도 구자라트법과대학교에서 이루어진 <동아시아법철학> 강의 이후 ‘한국법의 세계화’ 실천자로 Legal Times 4월호의 표지인물로 소개되었다. 4월 17-25일 서울법대 동창미전에 그림 3점, 사진 3점을 출품하여 판매금을 낙산장학재단에 기부하였다. 4월 19일부터 8월말까지 역사관에서 <유기천의 법학세계> 유품전시회를 개최하고, 9월 15일 이항녕기념강좌를 가져 제1회 연사로 <동아시아법철학의 기초>를 발표하였다.

역사관에서 9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항녕 유품전시회가 개최되었다. 8월 말까지 아시아연구소 지원의 『동아시아 보통법』 연구집필을 완성 제출하였고, 7월 17일에는 『대한민국 건국대통령의 사상록: 우남 이승만, 독립, 자유, 민주를 외치다』(청아)를 출간하였다. 9월 22일에는 유기천기념심포지움에서 <한국법과 문화론의 전개>를 발표하였고, 9월 23일에는 춘원연구학회에서 <괴테-톨스토이-이광수>를 발표하였다. 10월 29일에는 한국인물전기학회 주최로 과주출판단지의 박영사와 열화당을 방문하고, ‘자랑스런 법대인’ 이대원의 과수원에 있는 산소를 참배하였다.



최병조 교수

최병조 교수가 금년 1월 21일 독일 괴팅겐 학술원(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Göttingen) 문과 부문(Philologisch-historische Klasse)의 교신회원(korrespondierendes Mitglied)으로 선출되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교신회원은 모두 6명(이과 4명, 문과 2명[신학과 법학])인데, 최병조 교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독일대학 교수이다.

1751년 설립된 괴팅겐 학술원은 독일의 여덟 개 학술원 중 두 번째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데, 독일 학술원의 토지관할 원칙에 따라 괴팅겐과 북독일 지역 거주자를 정회원(각 부문별로 최대 40명)으로, 독일의 기타 지역 거주자와 외국인은 교신회원(각 부문별로 최대 100명)으로 선출한다. 회원의 선출은 최소 3인의 정회원의 이유부 서면에 의한 신청과 해당 문과 또는 이과 부문의 제청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부문의 제청은 제청에 앞선 회의에서 투표권 있는 재석자의 3/4 이상의 다수가 찬성해야만 한다. 한 부문의 제청은 제청투표가 이루어지기 전 적시에 다른 부문에 통지되어야 한다.

선출투표는 (만 70세가 되거나 거주를 북독일 지역 밖으로 옮김으로써) 현역을 면한 자를 제외한 모든 정회원의 최소 반이 참석한 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이루어지며, 투표권 있는 재석자의 3/4 다수결을 요한다. 현역이 아닌 정회원은 모든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최대회원수의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교신회원은 만 75세가 되면 최대회원수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교신회원과 명예회원은 투표권이 없다.

현재 헌법 전공의 Christian Starck 교수(1982년부터 정회원)가 원장으로 있는 동 학술원 홈페이지 회원명단에 의하면 법학 전공의 정회원은 모두 11명이고, 10명의 교신회원은 모두 독일과 유럽의 교수들이다(독일 4명, 네덜란드 2명,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각 1명). 최병조 교수의 박사지도교수인 Okko Behrends 교수(1982년부터), 본교 박정훈 교수의 박사지도교수인 Ralf Dreier 교수(1980년부터), 김도균 교수의 박사지도교수인 Robert Alexy 교수(2002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Reinhard Zimmermann 교수(2003년부터) 등이 정회원이고, 송석윤 교수의 박사지도교수인 Gerhard Dilcher 교수(2007년부터) 등이 교신회원이다. 동양인으로서 회원이 되기는 최병조 교수가 처음이다. 새 교신회원 소식은 동 학술원의 소식지 Akademie heute, Ausgabe 1/2011, p. 2; Ausgabe 2/2011, p. 4에 실렸다.

독일의 학술원 명단(설립연도순)은 다음과 같은데, 이들은 독일학술원연합회를 구성하여 학술활동을 상호 조율한다.

- | | |
|---|------------------------|
| 1.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학술원 (1992/1700), 본거지: 베를린 및 포츠담 | 2. 괴팅겐 학술원 (1751) |
| 3. 바이에른 학술원 (1759), 본거지: 뮌헨 | 4. 라이프치히 작센 학술원 (1846) |
| 5. 하이델베르크 학술원 (1909) | 6. 마인츠 학술문예원 (1949) |
| 7.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학술예술원 (1970), 본거지: 뒤셀도르프 | |

괴팅겐 학술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uni-goettingen.de/de/10150.html> 참조.
독일학술원연합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akademienunion.de/> 참조.



호문혁 교수

호문혁 교수는 6월 27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주최한 법률구조대회에서 “법률구조재단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독일 Heidelberg에서 개최된 세계소송법학회에 Council 자격으로 참가하여 2014년의 세계소송법학회를 한국으로 유치하였다.

8월 12일부터 15일에는 중국 남경과 소주에서 개최된 한중민사소송법 공동학술대회에 참가하였으며, 9월 11일부터 13일에 독일 München에서 개최된 독한일 국제비교법심포지엄에 참가하여 “한국에서의 상고심부담경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성낙인 교수

성낙인 교수는 지난 9월 제19대 국회의원총 선거를 위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취임하였다.



남효순 교수

남효순교수가 한국민사법학회 차기 회장(2013. 1. 1-12. 31)에 선출되었으며, 올해에는 수석 부회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박은정 교수

박은정 교수는 지난 7월 15일 사법연수원 주최 제1회 법철학 포럼에서 “법관과 법철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또 저서 『왜 법의 지배인가』가 지난 7월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정상조 교수

정상조 교수는 8월27일 민사판례연구회 하계심포지엄에서 “경제적 불법행위 시론: 아이디어 유통의 민사법적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다. 10월 17일 ‘제2회 한중 지재권 세미나: 특허법’에서 ‘Service Invention: Ownership of the Patent, Reward and Encouragement’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윤진수 교수

윤진수 교수는 7월 19부터 23일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국제가족법학회 학술대회에서 “The reform of the consensual divorce process and child support enforcement system”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그 곳에서 3년 임기의 국제가족법학회 이사로 선출되었다.



신희택 교수

신희택 교수는 지난 5월 법무부 국제법무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이 위원회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법률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와 해외진출방안 등을 모색할 목적으로 발족되었다. 아울러 6월 22일~2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APEC과 UNCTAD가 공동주최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에 관한 Workshop에서 “국제투자분쟁에 있어서의 투자자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다. 이번 Workshop에는 APEC회원국 17개국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10월 7일-8일 미국의 Yale Law School과 City University of Hong Kong이 공동주최한 국제회의에서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ies and Practices of China, Japan and Korea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Prospect for the Trilateral Investment Treaty” 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였다.



박준 교수

박준 교수는 5월 31일 법무부로부터 “상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준법경영 법제개선단” 단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 8월 19일 한국상사판례학회와 한국기업법학회가 공동주최한 “자본시장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과제” 학술대회에서 “기업금융활성화와 신종증권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석광현 교수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에 걸쳐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Asia-Pacific Regional Conference에 참석하여 5월 31일 Harmonization or Unific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Rules in Northeast Asia: Korean Perspective 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에 걸쳐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국제사법학회와 중국정법대학국제법학원 공동 주체 국제세미나에 참석하여 23일 Comparative Analyses of the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nd the Taiwa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Korean Law Perspective 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화진 교수

김화진 교수는 11월 3일 서울대 수리과학부에서 ‘브라질과 프랑스는 왜 축구를 잘 할까? - 경제와 수학과 축구와 법률’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10월 14일에는 ‘A New Era of Business and Finance in East Asia’를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를 기획, 머니투데이의 후원으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미시간대, 옥스포드대, 싱가포르국립대의 학자들과 ING그룹, 한국은행의 전문가들이 발표, 토론하였고 국내외 금융기관, 기업에서 약 400명의 참가자들이 아시아 금융산업의 미래에 대해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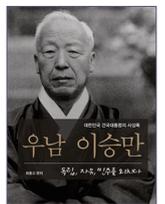
이봉익 교수

이봉익 교수는 8월 6일자로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센터장으로 취임하였다.

신간소개

대한민국 건국대통령의 사상록: 우남 이승만, 독립, 자유, 민주를 외치다_최종고 교수 / 청아

오늘날 대한민국 건국사의 중심에 있었던 우남 이승만에 대해서는 극과 극의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아직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최종고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대통령리승만담화집>, <독립정신>, <일본내막기> 등 우남이 직접 남긴 기록들을 주제에 따라 5장에 걸쳐 정리하여 독자로 하여금 우남의 ‘육성’을 듣고 그의 삶과 사상을 직접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동아시아법철학의 기초_최종고 교수 / 관악출판사

이 책은 한국 법철학의 선구자 이항녕(1915-2008) 박사를 기념하는 기념강좌시리즈의 제1권에 해당한다. 책은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왜 동아시아법철학인가’를 시작으로, ‘동아시아법문화의 전통’, ‘동아시아법철학으로서의 이항녕법철학’, ‘동아시아법철학의 과제’, ‘동아시아법철학의 방법’, ‘동아시아법철학의 전망’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점규제법 30년_권오승 교수 / 법문사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에서는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의 발자취와 성과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20여명의 학자와 실무자의 연구를 엮어 책으로 출간하였다.

제1편에서는 독점규제법의 법체계상 지위를 여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고찰하고 있으며 제2편에서는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의 연혁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다. 제3편에서는 독점규제법의 구체적이고 실체법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제4편에서는 규제 산업과 독점규제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정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편에서는 경쟁당국의 조직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독점규제법의 집행절차에 대한 소개를 통해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헌법학입문_성낙인 교수 / 법문사

성낙인 교수의 신간 <헌법학입문>이 출간되었다. 이번 책은 친근한 헌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법학도에서부터 널리 일반 교양인에 이르기까지 두루 학습할 수 있는 표준적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들에게 헌법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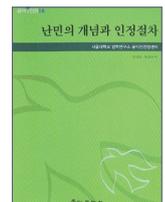
헌법은 국민의 생활전범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의 특성에 비추어 국민들이 두루 헌법과 헌법이론을 접할 기회에 대한 요구가 커져 왔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학입문>은 헌법학이 요구하는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헌법이 갖는 대중적 성격에 부응하는 국민적 교양서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다.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_정인섭 교수 외 / 경인문화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에 한국이 가입한지 어느새 20년이 되었다. 한국은 1992년에 난민협약에 가입해서 2001년 난민을 처음으로 인정했고 이후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난민의 개념 자체가 익숙지 못한 사람들은 난민에 대해 어색함과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난민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난민 문제의 상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한국 사회에서의 난민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연구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두 차례에 걸쳐 난민을 주제로 연 학술회의에서의 발표문들이다. 이 책에는 2009년과 2010년 열린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民法論攷 V(相續法)_윤진수 교수 / 박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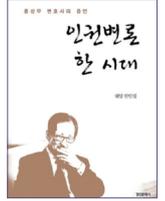
만 2년 만에 윤진수 교수의 <민법논고 V>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민법논고' 시리즈의 제5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저자가 상속법에 관하여 쓴 글들을 모아서 펴낸 것이다.

이 책은 상속제도의 헌법적 근거 및 상속법 개정안과 관련 판례의 경향과 같은 거시적인 조망과 함께 상속회복청구권과 채무의 상속 등을 중심으로 한 상속법의 전반적인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변론 한 시대_한인섭 교수 외 / 경인문화사

이 책은 사법 압축기로 불리는 유선정권과 제 5공화국 시대에 인권변론사로 활동한 홍성우 변호사의 증언을 한인섭 교수와 대담하는 형식으로 저술한 것이다. 총 1207종, 4만 6천 쪽의 변론자료와 100시간의 증언을 통해서 독재시대에서도 인권을 지키려 노력하고 민주화를 위해 싸운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1970년대와 1980년대로 구분해서 그 당시의 인권변론의 모습을 보여주며 현대사 속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 한다.



민법론 IV_김재형 교수 / 박영사

<민법론 III>이 나온 지 4년 만에 <민법론 IV>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민법론 III>을 펴낸 후에 저자가 발표한 논문과 평석을 모은 것이다. 여기에는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들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글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면서 법안의 기본구조와 내용을 소개하는 글,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에 대비하여 새로운 민법 교육에 관하여 쓴 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주요국가의 변호사 윤리규범_영국·독일·프랑스·EU·일본_박준, 이상원, 이효원, 박준석, 윤지현 옮김 / 도서출판 소화

영국의 사무변호사(solicitor)행위규범과 법정변호사(barrister)행위규범 및 법정변호사 업무수행기준, 독일의 연방변호사법,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률, 변호사직무규칙 및 전문분야 변호사규칙, 프랑스의 변호사직무에 관한 전국적 내부규칙, 유럽연합의 유럽변호사 행위규범, 일본의 변호사 직무기본규정을 번역한 “광명덕기금 법조윤리 총서” 2권이 출간되었다. 주요 외국의 변호사 윤리규범을 파악하고 비교함으로써 법조윤리 연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 변호사 윤리규범을 재검토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경제법연습_이봉의 교수 외 / 흥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효원 교수와 공저한 <경제법연습>은 내년 초 제1회 변호사시험의 시행을 앞두고 전문법률분야의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경제법 분야에서 출간된 사례형 교재이다. 이 책은 학생들이 사례형 논문문제를 통하여 경제법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사례를 균형있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집필되었다.

이 책의 내용은 2011년 8월 말을 기준으로 현재 개정된 공정거래법령 및 소비자보호법령과 관례를 기초로 제1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분과 제2편 소비자보호법의 두 가지 큰 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각의 세부 주제에 대한 설명과 사례문제 및 해설 등을 담고 있어 법학전문대학원 및 각 대학의 교재로 활용되기에 충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우수도서 선정 소식

대한민국학술원에서 발표한 2011년도 사회과학분야 우수학술도서에 다수의 본교 교수 저술 도서가 선정되었다.

- 회사법 연구(I~II) : 김건식(도서출판 소화)
- 왜 법의 지배인가 : 박은정(도서출판 돌베개)
- 국민의 사법참여 : 한인섭 외(경인문화사)



최고지도자과정

최고지도자과정 제14기 수료식이 지난 8월 26일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렸다. 제14기 과정에서는 총 42명이 수료하였으며, 수료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성무	KBK 특허법률사무소	부소장	박찬욱	KBS 보도본부 경제부	부장	이석용	법무법인 수목	대표변호사
강 용	노보텔엠베서터부산	회장	박현수	온세계건설(주) / 유아이건설(주)	대표이사	이수호	신호스틸(주)	대표이사
곽상현	사법연수원	교수(부장관사)	변광호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이승택	사법연수원	교수(부장관사)
권오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서울중앙지역협의회	회장	석윤태	의정부 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대표소장	이영미	방송통신위원회	부이사관
김철수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실장	송기민	팍스코이앤아이(주)	대표이사	이제호	청와대 대통령실	법무비서관
김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학범	(주)암랩	대표이사
김미경	(주)셋별전산	대표이사	신재철	POSCO	상무	임종철	방위사업청	합정사업부장(해군소장)
김영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엄성룡	(주)효성	전무이사	정금용	삼성전자	전무
김홍근	(주)드립텍	대표이사	여용동	다원기술금융(주)	대표이사	지대우	(주)인덕불산	대표이사
박승관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동섭	(주)오앤케이홀딩스	대표이사	차동연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박승걸	신한은행	본부장	오병주	국무총리속속	위원장(차관)	최승호	선이고운 성형외과	원장
박영구	금호전기(주)	회장	유승재	(주)엘레나플라워	대표	최예영	화창토산(주)	대표이사
박승걸	에이스네이처(주) / 브니엘위터(주)	대표이사	윤희정	럭셔리하우스	대표	태성은	한전KPS	대표이사
박영구	KBS 보도본부 경제부	부장	이대수	우리선물(주)	대표이사	황대일	연합뉴스	증권부장
박정호	에이스네이처(주) / 브니엘위터(주)	대표이사	이범주	(주)신광전력	대표이사			

발달진기금 출연현황

2011.04.01 - 2011.11.30 |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법과대학 / 법학연구소

납입일	성명	납입액	지원단위	기금용도	납입일	성명	납입액	지원단위	기금용도
2011-04-06	Eyagi(이야기) CAFE	22,500,000	법과대학	장학	2011-09-27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임
2011-04-12	장윤혁	10,000	법과대학	도서	2011-09-27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1-04-21	차재세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1-09-29	김건식	10,586,800	법학연구소	위임
2011-04-26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임	2011-10-05	안철상	1,000,000	법과대학	학술
2011-04-26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1-10-10	송근철	5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1-05-02	송근철	5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1-10-21	차재세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1-05-23	차재세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1-10-26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임
2011-05-26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임	2011-10-26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1-05-26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1-11-01	송근철	5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1-05-27	조상원	500,000	법과대학	학술	2011-11-21	장윤혁	10,000	법학전문대학원	도서
2011-06-01	정순섭	5,000,000	법학연구소	위임	2011-11-21	차재세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1-06-01	송근철	5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1-11-23	김상현	50,000,000	법과대학	학술
2011-06-15	송광수	10,000,000	법과대학	시설물	2011-11-23	대한상사중재원	5,00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1-06-21	차재세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1-11-25	법무법인 광장	5,00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1-06-21	법무법인 세종	5,00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1-11-28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임
2011-06-28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임	2011-11-28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1-06-28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1-11-30	법무법인 케이씨엘	3,00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1-07-01	송근철	50,000	법학연구소	학술	납입액 기간 합계 (11.04.01 - 11.11.30) 373,196,800				
2011-07-12	후원자00065	5,000,000	법과대학	장학	법발발재단				
2011-07-21	차재세	10,000	법과대학	학술	납입일	성명	납입액	기금용도	
2011-07-26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임	2011-04-13	법대최고지도자과정 13기	100,000,000	위임	
2011-07-26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1-05-18	법대최고지도자과정 14기	50,000,000	위임	
2011-08-01	송근철	5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1-05-20	정상명	286,000	위임	
2011-08-22	차재세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1-05-26	김준규	286,000	위임	
2011-08-26	전일호	10,000	법과대학	위임	2011-07-23	이인영	81,050	위임	
2011-08-26	최지석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1-08-16	법무법인(유한) 정평	200,000	학생복지 행사지원	
2011-08-26	한화석유화학(주)	1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1-08-16	강재철	5,000,000	위임	
2011-08-30	김경한	50,000,000	법과대학	시설물	2011-08-09	법무법인 충청	200,000	학생복지 행사지원	
2011-09-01	송근철	50,000	법학연구소	학술	2011-08-24	CIPO 제1기 원우회	1,000,000	위임	
2011-09-21	차재세	10,000	법과대학	학술	2011-08-26	법무법인 대륙아주	200,000	학생복지 행사지원	
2011-09-21	(주)한화갤러리아	1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1-09-01	장승화	1,740,180	시설	
2011-09-22	(주)한화	1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1-09-06	법대최고지도자과정 14기	50,000,000	위임	
2011-09-22	한화증권	1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1-09-29	김건식	8,820,000	위임	
2011-09-22	대한생명보험(주)	2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1-10-12	정선태	286,800	위임	
2011-09-22	한화엘앤씨(주)	1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1-10-17	법대35회	150,500,000	위임	
2011-09-22	(주)한화건설	3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1-10-19	구본민	5,000,000	위임	
2011-09-23	한화손해보험(주)	2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1-11-04	법대45회	50,000,000	위임	
2011-09-23	(주)한화	2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1-11-17	최종고 교수	4,000,000	시설	
2011-09-23	(주)한화갤러리아	2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납입액 기간 합계 (11.04.01 - 11.11.30) 427,600,030				
2011-09-23	한화증권	2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2011-09-23	한화석유화학(주)	20,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					